

골목 사이사이... 근대 100년을 걷다

전북 익산

숨리근대역사문화공간



익산 숨리마을 내 독특한 감성의 숙소 '리스테이 익산'.



'포에버 매듭공방'



'숨리문화금고(옛 이리금융조합)'



'숨리문화의 숲'

한때 '숨리'로 불렸던 거리.

평동로를 따라 이어져 있는 익산 남부시장 인근 인화·주현·갈산동 일원 주단거리와 바느질거리. 익산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이 일대는 숨겨진 시간의 서랍이다.

골목골목마다 오래된 건물과 간판들이 저마다의 정취를 안고 아련한 시간을 간직하고 있다. 광복 이후 오랜 시간 말없이 이 거리를 지켜 온 주단집·바느질집에서 사람들은 웃을 지어 입었고 삶의 중요한 절기마다 함께 웃고 울었다.

당시 생활사를 엿볼 수 있는 이 일대는 보존과 활용 가치가 높다고 인정을 받아 지난 2019년 '익산 숨리근대역사문화공간'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지금은 화려했던 영광을 뒤로하고 시간의 흐름과 도시의 변화 속에서 속절없이 남아버린 모습이다.

그런 거리에 다시 숨결이 불어넣어지고 있다. 과거와 현재를 잇기 위한 익산시의 꾸준한 노력과 민·관이 함께하는 도시재생 등이 맞물리면서 한동안 멈춰 있던 거리에 향긋한 커피향이 퍼지고 발걸음이 속속 이 어지고 있다.

남부시장 인근 인화·주현·갈산동 일원
국가등록문화유산 지정... 도시재생사업
일제강점기·해방 후 건축물 카페·공방 등 변신
근대 건축·생활사 어우러져 방문객 줄이어

◇과거와 오늘이 만나는 거리

갈대숲에 숨어 있던 작은 마을 '숨리(숨리)'.

고작 10호 남짓의 민가가 전부였던 이 마을은 1914년 동리지역이 생기고 열차가 오가면서 상업도시로 성장했다.

1914년 당시 이리역 통계를 보면 승하차 인원만 16만 명에 이르고 오고간 화물은 약 28t에 달한다. 호남 최고의 도매상들이 몰리면서 미국부터 잡화, 신문, 여관, 장신구, 화과자 등 일대는 근대 문물이 가득한 최고의 상업지역이 됐다.

최근 익산시는 근대기 상업과 생활, 저항과 생존이 응축된 살아있는 유산과 흔적을 잘 정비해 '숨리마을'을 새로 조성했다. 이를 통해 일대는 역사적 건축물의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현대적인 쓰임을 더해 과거와 현재가 조화를 이루는 독특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이는 단순한 전시형 공간이 아닌, 원도심의 역사적 자산을 기반으로 시민과 관광객이 직접 머무르고 체험하는 참여형 공간이다.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100년 된 흔적들

숨리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 근대 건축물을 적극 보존·활용해, 그 자체로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 같은 공간이 됐다는 점이다.

현재 운영 중인 공간 대부분이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이후 형성된 건축물로, 오래된 공간이 새 숨결을 품고 있다.

1954년 형제상회로 쓰였던 '이사도라주단' 건물은 이제 천연비누를 만들며 감각을 일깨우는 체험 공간으로 변신했다. 시간의 주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이곳은, 근대 상가 건축물의 원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특히 일제강점기 당시 지어진 건물 간 연결 흔적이 남아 있어 이 지역 상업 구조의 변화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다.

이사도라주단 건물과 연결된 곳은 바로 옛 '새시대 양품점'의 다락이다. 한때 최고의 잡화점이었던 이곳은 이제 '속리카페'가 됐다. 향기로

운 커피와 이야기가 흐르는 북카페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한복 바느질로 번성했던 바느질거리의 흔적을 간직한 '포에버 매듭공방'도 있다. 당시 생활사와 거리 문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곳으로, 이곳에서는 끈기를 담아내는 매듭을 만나 볼 수 있다.

이 오래된 골목 끝에는 독특한 감성의 숙소 '리스테이 익산'이 자리한다. 근대 문화 숨결을 고스란히 간직한 이곳은 일식 목구조 건물로 내부 바닥 장마루, 천장이 원형대로 남아 있다. 마당의 프라이빗 풀과 야와 테이بل은 반전 포인트다.

◇작은 박물관이 된 금융조합

1920년대 지어진 옛 리금융조합 건물은 목은 때를 벗고 새 옷을 입었다. 건축 당시 유행했던 근대 건축의 전형적 모습과 현대 과학기술이 어우러진 매력적인 공간으로 재탄생한 이곳의 이름은 '숨리문화금고'다.

일제강점기인 1925년 금융기관으로 건립된 건물은 해방 이후 1957년부터 등기소로, 1969년부터는 전북은행 이리지점으로 사용됐다. 지금도 중앙 현관 출입문에는 옛 전북은행 로고가 남아 있다.

옛 금융기관 건물이 간직한 역사성을 적극 활용한 금고는 상시전시실과 금융미디어 창구, 시간이 보관된 금고, MR 체험(매직월), 열리지 않는 금고, 고지도 속 익산 시간여행, 내 얼굴 찍힌 지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특히 이 금고는 실제 이곳에 살았던 주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주민들은 집에서 보관하고 있던 옛날 돈이나 통장, 월급 명세서, 흑백 졸업 앨범, 오래된 카메라와 타자기, 자라며 듣고 본 경험 등을 아낌없이 제공했다.

◇과거의 숨결 위에 새로운 삶을 입히다

지난 4월 문을 연 '숨리문화의 숲'은 창업과 관광, 문화가 어우러지는 살아있는 역사 도시재생 모델이다.

복합문화공간인 이곳은 1층 북카페와 2층 전시관·소극장으로 조성됐다.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가와 시민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1층은 시민들의 만남과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꾸며졌다. 책을 읽으며 답소를 나눌 수 있는 '책다방'과 소규모 모임과 주민들의 소통 공간 '삼삼오오 홀',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가족 휴게실'이 마련돼 있다.

2층은 익산 예술의 정수를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되는 '숨리 화랑'과 연극·무용·영화 등 다양한 공연이 가능한 '숨리 소극장'이 들어섰다. 이를 통해 예술인에게는 창작활동의 장을, 시민에게는 일상에서 고품격 예술을 경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곳은 익산문화도시지원센터가 운영을 맡아 다양한 시민 참여 프로그램과 문화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지역 항일운동 역사 되새겨보는 공간

익산 4·4만세운동이 활발히 펼쳐졌던 남부시장 인근 옛 대교농장 자리에 있는 항일독립운동기념관(옛 익산 중학교 및 강당)은 원래 1948년 설립된 화교 교육기관 건물을 리모델링해 조성한 것으로, 지역의 항일운동 역사를 기념하는 전시 공간으로 변신했다.

내부는 익산 이규홍 의병장 일대기가 포함된 항일운동관과 일제강점기 수탈관, 4·4만세운동관 등 총 3개관으로 조성됐으며 항일의병투쟁부터 익산의 독립운동인 4·4만세운동까지 각종 자료와 유물들이 전시돼 있다. 이는 익산시민들의 긍지를 드높이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나라사랑 정신을 일깨우는 교육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북일보=송승욱 기자·사진=익산시 제공